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93-3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

2020. 09. 02.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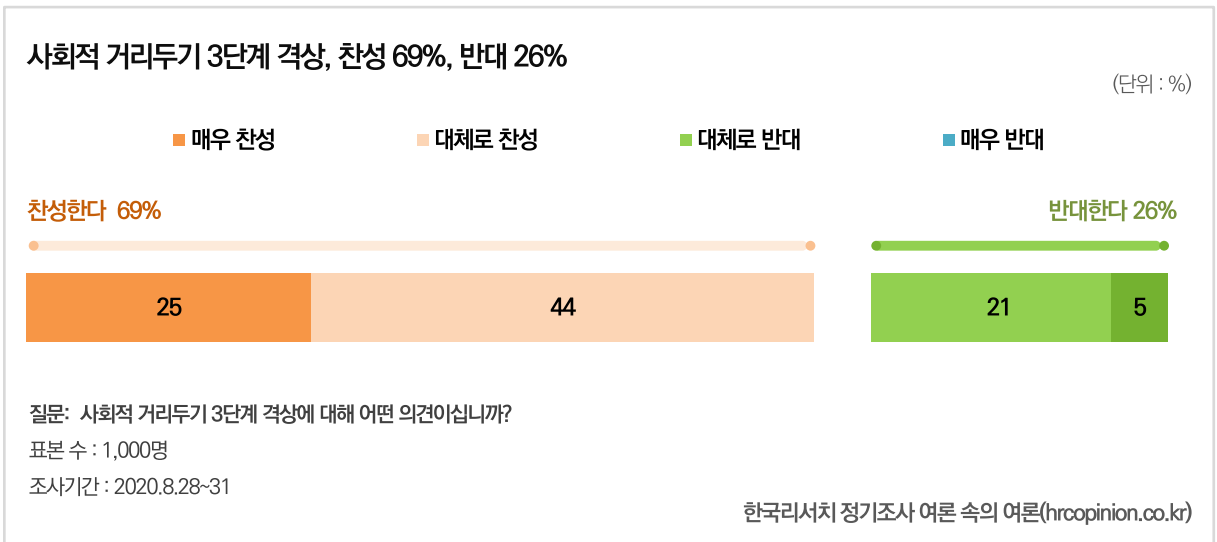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찬성한다 69%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은 지난 8월 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다. 일반음식점 등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도 시행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하였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다. 3단계 격상에 매우, 혹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69%로, 반대 의견(26%) 보다 높았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이 경제회복·활성화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자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찬성 의견이 높은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확산세를 빠르게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활성화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코로나19 방역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2%가 코로나19 방역을 경제회복·활성화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점은, 당장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 19 방역이 경제회복·활성화보다 우선이다 85%

(단위: %)

- 방역을 훨씬 더 우선
- 방역을 좀 더 더 우선
- 경제회복·활성화를 좀 더 우선
- 경제회복·활성화를 훨씬 더 우선

코로나19
방역 우선 85%

경제회복·
활성화 우선 12%



질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활성화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0.8.28~3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7월 기준 약 5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637명, 조사참여 1,28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1%, 참여대비 77.7%)
조사일시	• 2020년 8월 28일 ~ 8월 3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